

사순 제1주일 복음 나누기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루카 4,2)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루카 4,1-13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 4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 7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8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9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10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1절). 악마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악마가 인간을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의 유혹을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요르단 강, 광야, 높은 곳, 예루살렘 성전 등 여러 곳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중 아득하게 멀고 너른 벌판 즉,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광야는 고독의 공간이며 동시에 사색의 공간이고, 그 광활한 자연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은 광야를 이중적인 의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넘어서기 쉬운 장소이며,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시험한 장소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장소라고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위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기에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우물』, p115)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 간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2절)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라는 첫 번째 유혹을 받으십니다. 시장할 때에 ‘빵’은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빵의 변화 앞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란 조건을 동반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3절).” 하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단순히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 육의 허기만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악마가 조건부로 예수님을 유혹하려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당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4절).”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5절). 빵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께 악마가 내어놓은 두 번째 유혹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라고 하니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니까? 악마의 것이니까?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것이 악마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악마에게 경배한다 하여도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8절)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제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9절-11절)”며 성경의 기록까지 언급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도 된다는 식으로 성경구절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12절).

유혹은 인간이 나약해졌을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공격해옵니다. 복음을 통해 악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자신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악마가 성경말씀으로 교묘히 유혹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맙니다. 하지만, 악마가 줄 수 있는 것

은 찰나에 누리는 만족감과 기쁨이지, 영원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셨지만 말씀으로 당당히 악마의 유혹에 맞섰던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며 일상 안에서 걷게 될 사십 일의 긴 여정인 사순시기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요즘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나의 결심을 나누어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